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I. 머리말

최근 탐라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고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경주, 2009). 하지만 아직도 탐라의 대외적인 교류 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변적이고 피상적인 연구(조현중, 2005; 권오영, 2009)에 그치고 있다¹⁾. 특히 대외교역의 산물인 한식 유물(漢式遺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중국 혹은 낙랑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상정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강창화, 2009).

한편 고대 탐라정치체(耽羅政治體)의 수장층 무덤으로 판단되는 용담동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 탐라의 성장

1) 예를 들면 동방교역로 혹은 동아시아 교역로상에 탐라를 주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탐라의 정치세력이 중국-한반도-일본을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김경주,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대 탐라에 대한 고고학적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고대 탐라가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단계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일대에 다양한 정치조직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알려진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삼한과 한군현은 물론 대중국 교류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산지향을 비롯한 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는 당시 탐라의 정치 세력이 동아시아 교역 루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위세품(威勢品)으로 추정되는 각종 청동기와 철기류 그리고 옥기(玉器) 등 한식 유물의 도입은 결국 상위 계층의 등장을 시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세품을 주로 수입했던 상위 계층과 함께 대외교역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탐라의 정치세력이 조직화하여 정치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입된 한식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당시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존재했던 삼한사회는 물론 한군현과의 교류 양상과 그 성격을 밝혀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기원 3세기대 탐라에 유입된 외래유물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물의 교역 루트와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선진문물인 한식 유물의 도입과 수장층의 출현, 삼한 또는 낙랑군과의 적극적인 교류 등은 당시 탐라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외교역의 주요 물품인 한식 유물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후 탐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초보적인 작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II. 대외교역 유물의 검토

제주지역에서 출토된 한식 유물은 청동기, 철기, 화폐, 옥기 등이 있다. 각 종류별 출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도 출토 한식 유물

유적명	유적의 성격	출토유물
삼양동 유적	마을 유적	청동검, 청동화살촉, 옥환, 유리옥
삼도동 유적 (산지향 출토포)	기타 유적	화폐(오수전 · 화천 · 대천오십 · 화포), 청동거울, 검장식구
종달리 유적	패총 유적	청동검, 화폐(화천)
금성리 유적	생활 유적	화폐(화천)
용담동 유적	무덤 유적	철검, 철도끼, 철화살촉, 유리구슬

1.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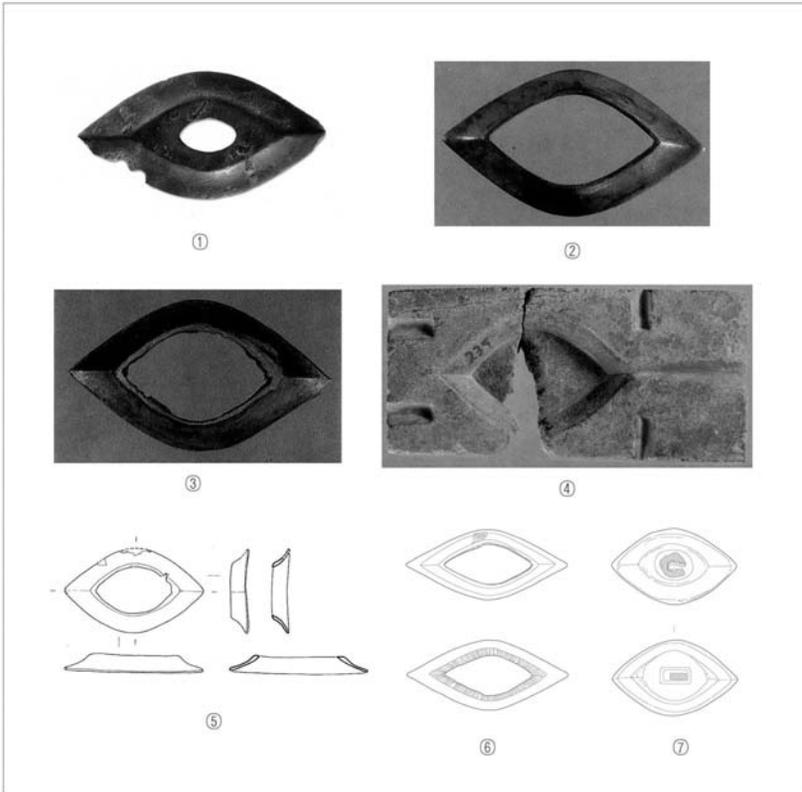
우선 청동기를 살펴보면 청동검과 청동화살촉, 청동거울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청동 제품은 제주지역에서 소량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의례와 관련된 유물로 이해되고 있다. 청동기는 낙랑지역에서 자체 제작 후 한반도 남부지역에 보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정인성, 2003), 영남을 비롯

한 일본 구주지역에서 거푸집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청규, 2008a).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거푸집이 확인된 예가 없고 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의 출토량도 극히 적어 외부에서 제작된 후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동검(靑銅劍) 및 검코[鐔部]

동검은 삼양동과 종달리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후자가 온전한 형태로 수습되어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종달리 출토 동검은 허리 패임[挾入部]이 뚜렷한 전형적인 한국식 동검에 속하며 등대의 날이 스페 바로 위까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검몸 아래와 아랫 부분이 직선화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변화가 진행된 단계의 동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검은 멀리 러시아 연해주의 이즈베스토프카 유적(홍형우, 2012)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서북한지역에서는 평양 정백동과 석암리에서 확인된다. 반면 남한에서는 대구 팔달동과 경주 조양동, 창원 다호리유적 등 쇠퇴기에 주로 집중되는데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기원 1세기 전반까지로 추정되고 있다(이청규, 1997; 조진선, 2005).

특히 정백동 1호분에서는 한국식 동검과 검 장식구, 세모꼴의 청동화살촉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각각 산지향이나 삼양동 출토품과 형태상 동일하다. 하지만 검 장식구는 물론 본뜬거울[倣製鏡]은 영남지방에서 기원 1세기 전반대 이후 제작 보급되는 점(이청규, 1997)으로 미루어 볼 때 낙랑지역에서 제작되어 보급되는 것과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그림 1〉 한반도 출토 검코(①산지항 ②낙랑 토성동 4호 ③낙랑 정백동 206호 ⑤대구 팔달동 99호 ⑥서산 예천동 ⑦경주 사라리 130호)와 거푸집(④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리)

다. 따라서 낙랑지역의 선진문물이 곧바로 탐라에 유입되었다기보다는 삼한지역을 거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지체가 이루어진 후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달리 출토 한국식 동검은 영남지방 출토품과 상관 관계를 고려하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1세기쯤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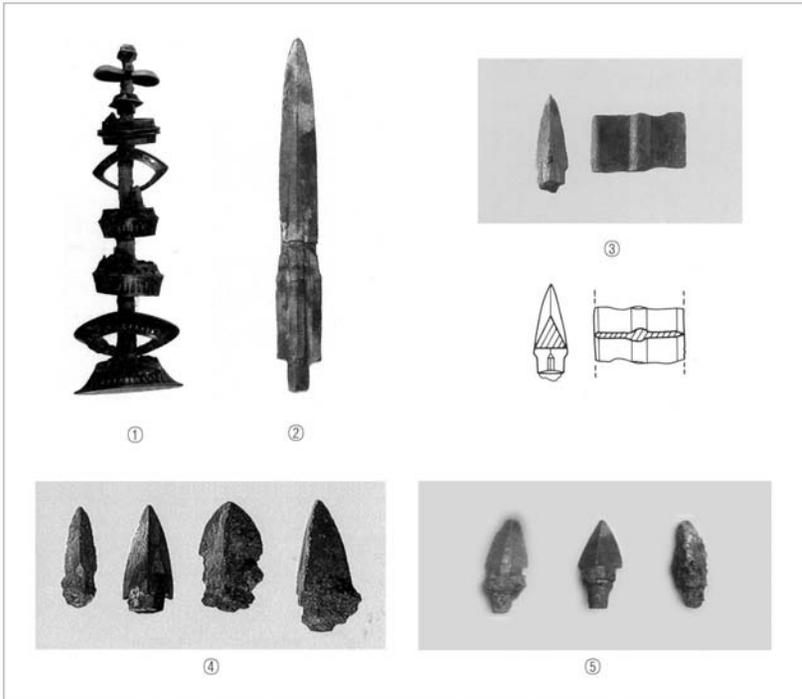
정된다.

낙랑군 설치 이후에도 한국식 동검은 계속 제작되는데 장식구와 함께 칠(漆)검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변·진한 지역 조립식 검집이 낙랑군 출토품과 비슷한 점(정인성, 2003: 556~557)으로 미루어 볼 때 산지향 출토품 역시 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낙랑구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 말부터 1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정백동 1호와 206호 분묘, 토성동 4호 분묘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검코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리에서 기원전 3~2세기대의 검코 거푸집이 출토되었다(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89). 이러한 예로 보건대 당시 낙랑에서는 전술한 형태의 검 장식구가 대략 기원전 2세기 말부터 1세기 전반쯤에 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칼집은 대부분 목제이고 양끝과 중간 연결부에만 청동부품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연결 장식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검자루 장식은 보통 일체형과 결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지향 출토 검코는 결합식에 해당하며 마구리 장식이 간략화되고 투공 장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창원 다호리 19호와 경주 사라리 M130호분 검코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한국식 동검의 검몸과 검자루 조립방법을 살펴보면 다호리는 기원전 3~1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반면, 사라리 유적은 기원전 2세기 말~기원 1세기쯤으로 편년되고 있다(김동일, 2013). 특히 검자루 장식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경주 사라리 M130호분과 비슷하다. 또한 대구 팔달동유적 99호분 출토품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산지향 출토 검 부속구인 검자루 장식은 대략 기원전 1세기~기원 1세기쯤으로 추정된다(구문경, 2002).



〈그림 2〉 청동검(①낙랑 정백동 37호분 ②중달리)과 청동화살촉(③삼양동 ④낙랑 석암리 200호분 ⑤인천 운북동)

2) 청동화살촉[靑銅鏃]

청동화살촉은 낙랑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화살촉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화살을 직선적으로 날리는 쇠뇌(弩)의 화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청동화살촉은 양날개꼴[兩翼鏃]에서 세모꼴[三稜鏃]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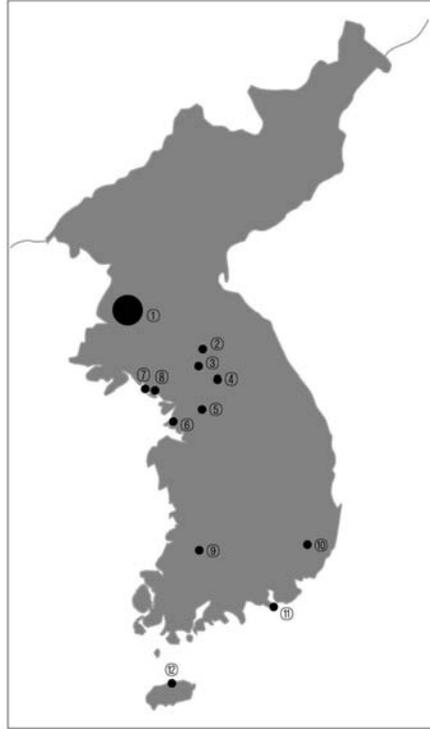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한수영, 2004; 이혜경, 2011). 특히 세모꼴 동축은 중국 내몽고와 요녕성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한반도에서는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중국 것은 대체로 연(燕)나라와 관련된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한반도 것은 낙랑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정인성, 2012).

중국에서는 기원전 5~3세기쯤 대릉하~요서~요동반도에 걸쳐 세모꼴 축이 매우 유행하며 특히 습베 부분에 철을 부착한 형태는 동북지방(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서 같은 시기에 출현한다(이혜경, 2011). 이러한 화살촉은 낙랑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반면 남부지역에서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인천 운남동과 운북동, 포천 금주리, 가평 대성리, 양평 양수리, 시흥 오이도, 철원 와수리, 광주 신창동, 경주 구정동, 사천 늑도, 제주 삼양동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북구주의 쿠에조노, 오키나와의 우수 패총, 이와테현 쿠마도우 고분 등에서 출토 예가 확인된다(정인성, 2011). 따라서 낙랑지역에서 제작된 청동기류가 남부지역의 삼한사회는 물론 일본열도까지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릉축은 한나라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과 대체로 분포 범위가 일치하며 뛰어난 명중률과 비거리 때문에 이민족에게 유출되는 것을 엄하게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인성, 2002:95).

평양 낙랑구역의 정백동 37호 무덤에서는 철검과 함께 청동검집, 청동거울, 삼릉축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지절(地節) 4년(기원전 66) 2월이라는 기년명이 새겨진 칠괵이 확인되어 기원전 1세기 후반기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백동 1호 무덤에서는 한국식 동검, 검장식구, 부조예군(夫租薺君)명 도장과 함께 삼릉축이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기원전 1세기 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회, 1990). 이외에도 정백동 2호 분에서 영시(永始) 3년명 일산대(수래의 지붕)가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14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낙랑군에서 삼릉축이 무덤에 끼묻거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계는 대략 기원전 1세기~기원 1세기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76점의 청동축 중에서는 삼릉축이 67점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특히 솜배 단면이 육각형이고 철을 보강하여 제작된 동축이 가장 많이 확인된다(정인성, 2011:445). 이와 동일한 화살촉은 인천 운북동, 광주 신창동, 사천 늑도, 제주 삼양동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낙랑지역으로부터 중서부지역의 마한을 경유해서 유입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는 대체로 생활유적에서 낱개로 출토되는 점으로 볼 때 무기의 기능보다는 지배층의 기념물적 상징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김길식, 2006:57; 정인성, 2011:465).



〈그림 3〉 한반도 출토 삼릉축 분포도
 ①낙랑 ②철원 외수리 ③포천 금주리 ④가평 대성리 ⑤양평 양수리 ⑥시흥 오이도 ⑦인천 운북동 ⑧인천 운남동 ⑨광주 신창동 ⑩경주 구정동 ⑪사천 늑도 ⑫제주 삼양동

낙랑지역의 무덤에서는 기원 1세기 전엽~중엽쯤에 철화살촉이 꺼묻거리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기원 1세기 후엽~2세기 이후에는 철화살촉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따라서 낙랑지역에서 삼릉형 동축은 기원 1세기 중반 이후에 대부분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정인성, 2011:460). 특히 인천 운북동 2호주거지에서 철이 보강된 삼릉형 동축이 세 꾸러미의 오수전²⁾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50~기원후 180년으로 산출되어 참고된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면 삼양동 출토품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세모꼴 청동축은 기원 전후~기원 1세기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³⁾. 낙랑지역에서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거푸집이 출토된 예로 볼 때 삼릉축이 낙랑군 설치 이후 현지에서 생산되어 조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정인성, 2011:462). 반면 낙랑군이 존속했던 한대에는 청동화살촉을 꺼묻거리로 묻는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정인성, 2011:453). 그 때문에 삼양동을 비롯한 남부지역 출토품 역시 낙랑에서 각종 청동기와 함께 삼릉축이 제작되었다면 여기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청동거울[銅鏡]

청동거울은 화폐와 더불어 원거리 교역의 대표적인 물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식 거울[漢鏡]⁴⁾은 영남지방의 경우 수장급 무덤에 한

2) 운북동 출토 오수전의 형태는 대체로 산지향 출토 오수전과 유사하다.

3) 광주 신창동 출토 삼릉축 역시 기원 전후~기원 1세기쯤으로 파악하고 있다(김경철, 2009:178).

정되어 꺼묻거리에 주로 사용되는 점으로 볼 때 유통의 주인공은 그 지역의 상위계층임은 분명하다(이청규, 2008a:70~71).

일본의 예를 참고하면 청동거울은 수장층에서 대대로 물려주다가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당시 수장층에게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위세품으로서 사용되었으며 더불어 원시화폐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清水康二, 2010). 또한 북부 구주지역에서는 1개의 무덤관에 다량으로 청동거울을 묻는 예가 확인된다. 이러한 무덤의 꺼묻거리 양상으로 보면 상위계층의 독점적인 물건임을 시사한다(高倉洋彰, 1994). 무덤에 부장된 청동거울은 신기(神器)로서 묻힌 사람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고 당대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청규, 2008b:209). 따라서 청동거울의 소장자는 그 지역 최고의 수장층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일본열도는 기원 1세기대가 되면 청동거울에 대한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후한경(後漢鏡)의 분할 사용(破鏡)⁵⁾과 작은 거울(小形鏡)의 제작이 북부구주 지역에서 개시된다. 또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누세대에 걸쳐 물려주는 현상도 발생한다(高倉洋彰, 1994:120).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한경의 출현은 기원전 1세기 후반쯤 진·변한 지역에 집중되며 마한 지역은 기원 2세기 이후부터 등장한다. 전한경은 주

4) 한반도와 일본열도 출토 청동거울은 대체로 한대 수입된 거울(漢鏡)과 이를 모방한 본뜬거울(倣製鏡)이 대부분이다.

5) 파경은 의도적으로 파손 후 깨진 단면을 갈아서 사용하는데 재생경(再生鏡)이라고도 부른다(高倉洋彰, 1994). 일본에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 경주 용전리에서 출토된 파경이 시기적으로 앞서는 점을 들어 진한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양수, 2011:9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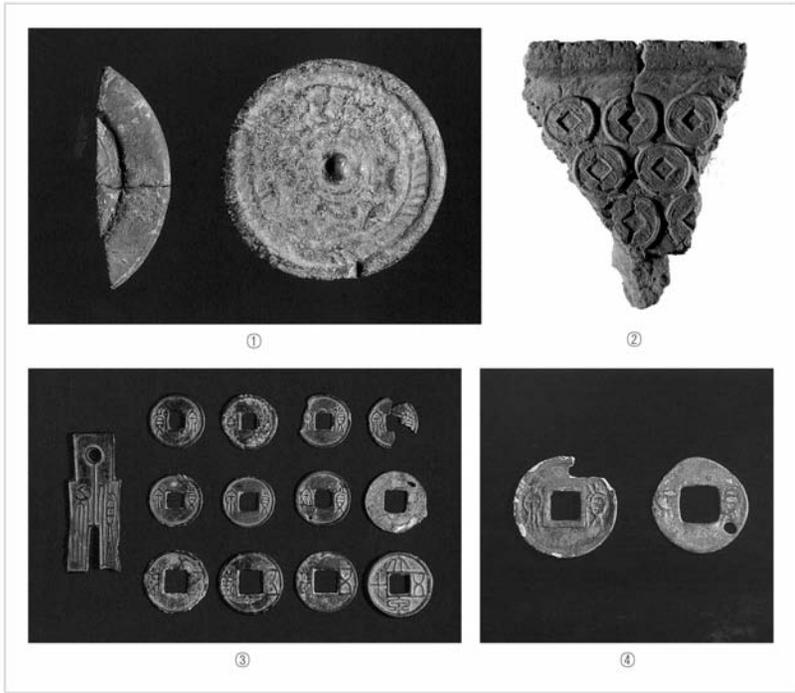
로 진한지역에서 확인되고 반면 변한지역에서는 후한경만 출토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변한지역은 진한에 비해 한경이 1~2세기 정도 늦게 출현한다(강은영, 2001:22~24).

산지항에서는 2매의 청동거울이 출토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후한경과 본뜬거울로 추정하고 있다(高倉洋彰, 1994; 이청규, 2008a; 이양수, 2011). 특히 방제경은 내행화문일광경(內行花文日光鏡)⁶⁾으로 분류되며 함께 출토된 유물과 화폐를 참고하면 기원 2세기 후반대 이후로 인식하고 있다⁷⁾(高倉洋彰, 1994:126). 반면 왕망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입과 대물림, 꺾문거리의 기간을 고려하여 영남지방의 경우 기원 1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이청규, 1997:70). 특히 변·진한 지역의 후한경은 대체로 기원 1~2세기대가 중심 시기에 해당(이재현, 2011:1364)하기 때문에 산지항 출토 방제경 역시 함께 출토된 화폐 등을 고려한다면 기원 1세기 이후로 판단된다.

소형 방제경(지름 6cm 미만)은 대체로 경북 내륙지역에서 출토되는 반면 이보다 큰 방제경은 김해지역에 한정되어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김현진, 2006:23~24). 또한 한국에서 출토되는 방제경은 중국의 한경을 모방한 것이 많은데 후한대의 내행화문경(內行花文鏡)을 주로 모방한 것은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김길식, 2006:353~354). 따라서 산지항 출토 방제경(지름 7.6cm) 역시 비교적 소형에 해당하고 동일한 형태인 것

6) 내행화문경은 방제경 중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淸水康二, 2010)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한 이후부터 2세기 전반까지가 중심 시기에 해당한다(이양수, 2006: 44).

7) 이전 논문에서는 기원 1세기 전반대 이후로 추정한 바 있다(高倉洋彰, 1989a:52).



〈그림 4〉 청동거울(①산지항 출토 한경/방제경, 화폐 거꾸집(②낙랑 출토 오수전 거꾸집) 및 화폐(③산지항 ④중달리/금성리)

으로 볼 때 김해지역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산지항 출토 방제경은 일본 학자들의 경우 청동의 재료가 다른 점을 들어 한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小田富士雄·武末純一, 1991:159)도 있지만 대체로 왜경(倭鏡)으로 이해하고 있다(高倉洋彰, 1994; 井上主税, 2006). 반면 한국의 학자들은 대체로 영남지역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제작 전통이 일본에 전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청

규, 2008a; 이양수, 2011). 더 나아가 경북 영천지역을 방제경 생산의 거점지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원 1세기 후반~2세기 초반이 되면 방제경 제작과 껌문거리의 중심지는 김해지역으로 이동한다(이재현, 2000; 강은영, 2001; 김현진, 2006).

산지향 출토 방제경이 왜경이라면 탐라와 왜의 교류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와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이 전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은 쉽지가 않다. 반면 변·진한 지역과의 교역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원 3세기대 용담동 분묘에 껌문거리된 다량의 철기류가 대부분 변·진한 지역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김경주, 2012). 또한 마한지역에서 한경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산지향 출토품이 변·진한 지역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한지역에서는 한경이 다량 출토되었으나 후한경은 변한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점(이양수, 2006)을 고려한다면 그 수입 루트가 변한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제경의 생산과 분배 및 유통은 당시 변한과 탐라의 긴밀한 관계망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2. 철기(鐵器)

철기류는 용담동 분묘에서 장검과 단검, 주조도끼, 화살촉, 창 등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다. 여기서는 분포권이 뚜렷하고 분묘가 축조된 연대 추정이 비교적 수월한 철제장검과 주조도끼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철제장검(鐵製長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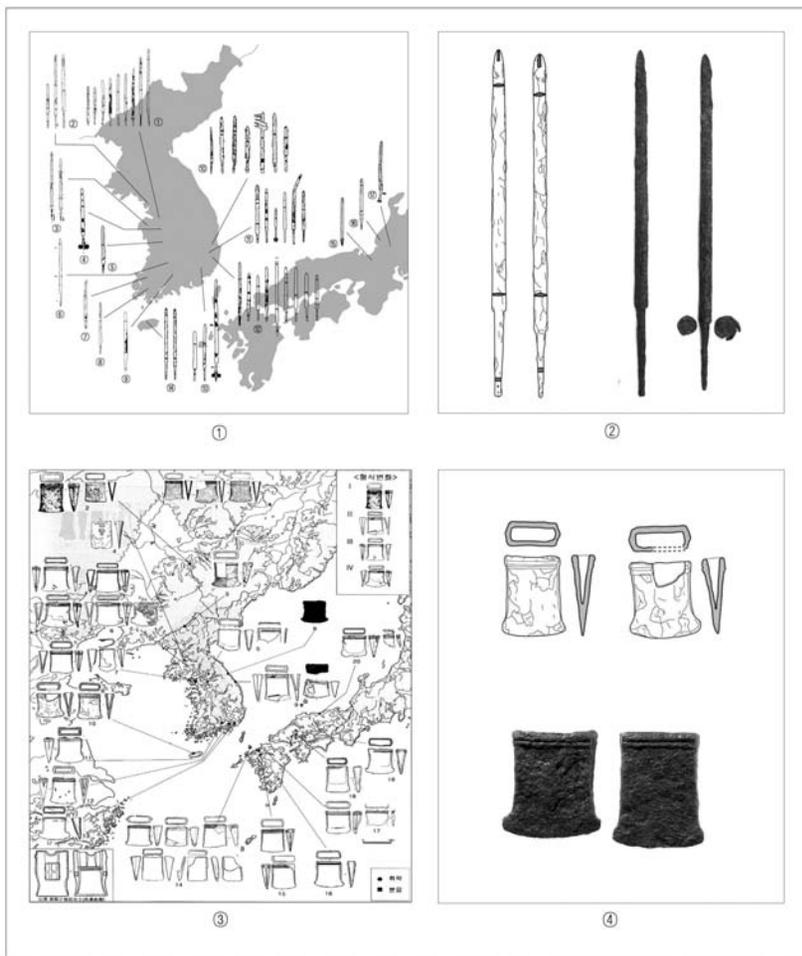
먼저 철제장검은 보통 길이 50cm 이상인 검을 말하는데 용담동 출토품은 2점 모두 길이(85cm)와 형태가 동일하다. 따라서 장검은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망자를 매장할 당시나 그 이전에 주문 제작하여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

철제장검은 전한 말기~후한 초기인 기원 1세기 이후에 크게 보급되었으나 남한지역에서는 기원 2세기 이후 무덤에 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청규, 2007:70~72). 용담동 출토 장검은 영남지방 출토품과 형태상 동일하다. 따라서 용담동 분묘 출토 철제장검은 변·진한지역에서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용담동 출토 철검은 손잡이 부분에 소용돌이 문양이 부착되어 있는데 연기 용호리, 포항 옥성리, 경주 황성동, 김해 양동리, 일본 나가노현 네즈카(長野縣 根塚 2호)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일본 교토 오후로미나미(京都府 大風呂南 1号墓) 출토품의 경우 용담동과 유사하다. 대략 3세기 전반쯤부터 일본열도에 철제장검이 확산되는 점으로 미루어(會下和宏, 2006:28) 제주지역도 이 시기에 도입된 것은 분명하다.

북한학계에서 철제장검은 낙랑지역의 경우 기원전 2세기 전반부터 무덤에 꺼묻거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한대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의 철제 병기 보급 양상과 한나라가 병기의 유통을 통제했던 대외정책을 고려하면 낙랑군 설치 이후에 보급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정백동 1호묘와 같이 기원전 1세기 이후의 무덤 출토 철제장검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남규, 2006:210~214). 반면 낙동강 하류에서는

철제장검이 기원 2세기 후반에 출현하며 또한 가장 늦은 3세기 중반까지 잔존한다(임영희, 2011).



〈그림 5〉 남한지역과 일본열도의 철제장검(①), 용담동 출토 철제장검(②), 한반도 주변 출토 주조쇠도끼(③김무중, 2013에서 전재), 용담동 출토 주조쇠도끼(④)

최근 연기 용호리에서 소용돌이 문양이 장식된 철제장검이 출토되었는데 그 규모와 형태를 보면 용담동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이 철검은 변·진한 지역과 철기를 매개로 한 교류 관계 속에서 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남석·이현숙, 2008). 더불어 이러한 철제장검이 변한에서 마한 수장층에 증여된 위신재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우재병, 2011:54). 따라서 용호리의 예로 보건대 용담동 출토 철검도 변·진한 세력과의 교역품임을 추정케 한다.

2) 주조쇠도끼[鑄造鐵斧]

주조쇠도끼 역시 2점이 세트르 출토되었는데 형태와 전체 길이가 11.7 cm로 일정한 점을 보면 철검과 함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쇠도끼의 형태를 보면 단면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자루를 끼우는 부분에는 2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끼는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유래하지만 대체로 한대를 거치면서 완성된다(김일규, 2009). 러시아 아무르강 중하류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기원전 2~1세기대 주로 출토되고 있다(홍형우, 2012:275). 한반도 중부지역에서는 기원 2세기쯤 2조 돌대 주조쇠도끼가 출토되는데 대체로 낙랑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지역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김무중, 2013).

2조 돌대 쇠도끼는 가평 대성리, 김해 양동리, 함안 도항리, 합천 저포리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육각형 도끼가 출현하는 단계인 기원 2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남지역과 제주도 등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개를 세트르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

한편 2조 둘대가 형성된 육각형의 쇠도끼는 기원 2세기 후반으로 여겨지는 김해 대성동에서 확인되며 또한 3세기 전반으로 비정되는 함안 말산리에서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육각형 주조도끼는 2세기 전반쯤 무덤에 끼문거리로 묻기 시작하여 3세기 전반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신동조, 2007:19~20).

3. 화폐(貨幣)

고대사회에서 화폐는 조개껍데기와 곡물 등의 물품화폐가 사용되다가 금·은·동을 원료로 하는 주조화폐가 유통된다. 이러한 화폐는 전국시대부터 상품거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한대에 더욱 발달하게 된다. 또한 신(新)나라의 왕망대에는 화폐 제조기술이 새롭게 도입되어 대량으로 주조하고 유통시켰으며 주변국에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김경칠, 2009:156).

오수전(五銖錢)은전한 무제 5년(기원전 118)에 처음 주조되었으며 신나라 왕망대에 폐지되었다가 후한대 다시 부활된 후 당나라 무덕 4년(621)에 폐지될 때까지 약 700여 년에 걸쳐 사용되었다. 『한서(漢書)』에 따르면 전한 후반기 100년간 오수전이 무려 280억 매가 발행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 협서성(陝西省) 안강현(安康縣)에서는 20,681매(105kg)의 동전이 출토되었는데 꾸러미째 줄로 묶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高倉洋彰, 1989b:33).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한반도 중부지방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오키노야마[沖ノ山]에서는 토기 안에 반량전 20매와 오



〈그림 6〉 한반도와 일본열도 출토 중국화폐 분포도(박선미(2008)와 森岡秀人(2003)을 참고하여 재편집)

수전 96매가 돈꾸러미 형태로 확인되었는데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森岡秀人, 2003:191). 최근 낙랑과 인접한 인천 운북동에

서도 청동화살촉과 함께 오수전 세 꾸러미가 출토된 예로 보아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 왕망전(王莽錢)은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주조되었는데 그중에서 대천오십(大泉五十)과 화천(貨泉)⁸⁾이 가장 많이 유통되었다. 화포(貨布) 역시 같이 제작되었는데 1매는 화천 25매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화천이 출토되는데 나가사키현[長崎縣, 기나이 지방[畿内], 북부구주(北部九州)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高倉洋彰, 1989b:32). 화천은 서남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14점이 출토되었다. 반면 화포와 대천오십은 남한지역에서 산지향 출토품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화폐의 가치는 『한서』 「지리지(地理志)」와 「무제기(武帝紀)」에 따르면, 사형수는 팔십오만을 내면 사형을 면할 수 있고 죄인들은 오십만전을 내면 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종태, 1977:220).

기원전 2세기 말 이전에는 화폐 유적이 주로 압록강과 청천강 유역에 밀집 분포하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평양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반면 중부 이남에서는 삼한이 위치한 서남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박선미, 2009:340). 즉, 한반도 남부의 삼한사회는 한나라와의 직접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설치된 한군현과의 교역을 통해서 화폐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다.

한나라 귀족관료의 묘제에는 화폐를 묻는 풍습이 성행하였는데 특히

8) 화천은 기원 14년에 처음 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한대에 더욱 증가한다. 예를 들면 후한대 뇌대 한묘에는 무려 2만 8천 여 매의 동전을 꺼묻거리한 예가 확인된다. 또한 호남성 장사현에서는 동전 외에 명전(종이돈)을 꺼묻거리하는 것이 성행하였고 마왕퇴 한묘에는 니전(진흙돈)을 동전 대신 묻기도 하였다(강인구 역, 1993:178).

영남지방의 경우 전한대의 화폐는 주로 목관묘의 부장품으로 확인되며, 신과 후한대의 화폐는 이전과 달리 모두 생활유적에서 출토된다. 하지만 기원 1세기 이후에는 판 모양 쇠도끼로 대체되면서 더 이상 분묘의 꺼묻거리로 사용되지 않는다(이청규, 2008a:72~73).

한편 일본에서는 주로 큐슈에서 긴키 지방에 이르는 이키(壹岐), 북부큐슈(北部九州) 연안과 산인(山陰)·산요오(山陽) 지역의 어촌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武末純一, 2009). 또한 중국 화폐가 출토된 유적은 분묘가 아니라 일상 생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武末純一, 2008). 즉, 화폐의 유통이 상인 활동의 교역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선 중원 혹은 낙랑과의 교역과정에서 화폐경제 수단(이현혜, 1998; 武末純一, 2008)과 위세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이청규, 2003; 박선미, 2009; 김경철, 2009)가 지배적이지만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정인성, 2003)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의례용으로 사용(이영훈·이양수, 2007)되거나 혹은 분묘의 꺼묻거리용으로 사용되었다(박순발, 2001)는 논의도 있다. 또한 신나라 왕망대의 화폐는 출입증의 역할을(김길식, 2006) 하거나 군현의 상인들이 교역권을 확장할 목적으로 널리 보급시켰다는 주장도 있다(이청규, 2008a).

일반적으로 오수전은 기년명이 새겨진 거푸집의 서체를 통해 제작연

대를 추정한다. 산지항 출토품은 글자 형태로 볼 때 후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건무십칠년(建武十七年, 41년)명 거푸집의 서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제작 연대가 기원전 63년 이전으로 소급되기 어렵고 함께 출토된 청동거울의 형태와 왕망전 제작기간이 한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원 1세기 중반쯤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영훈·이양수, 2007). 또한 한반도 출토 오수전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산지항 출토품은 기원후 40~146년까지 통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김경칠, 2009:150). 반면 화천은 화포, 대천오십, 오수전, 한경, 방제경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신나라 말기~후한 초기에 주도된 것으로 여겨진다(武末純一, 2008; 김경칠 2009). 따라서 오수전을 비롯한 왕망전이 제주지역에 유입된 시기는 대체로 기원 1세기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성리 유적에서는 화천 2매가 석축시설에서 확인되었는데 함께 출토된 토기를 살펴보면 대략 기원 3~4세기쯤에 해당한다. 종달리에서도 화천이 1매 출토되었는데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해 회현리와 성산 패총에서도 기원 4세기대 층에서 화폐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폐의 폐기 시점은 낙랑이 멸망하는 기원 313년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최종규, 1995:73~75). 따라서 화폐의 주조와 사용 연대는 물론 폐기 연대 역시 다르게 확인된다. 때문에 함께 출토된 유물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연대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반량전이 주도된 지 100년 이후에 유입된 예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森岡秀人, 2003:203).

4. 옥기(玉器)

1) 옥환(玉環)

고대 중국의 옥기는 의례용·매장용·장식용·미술품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옥벽(玉璧)⁹⁾과 옥환은 전국~한대에 걸쳐 크게 유행하는데 주로 의례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夏鼐, 1983). 고대 중국의 옥벽은 제의에 사용되는 기물이었으나 춘추시대부터는 죽은 자의 머리와 가슴에 두어서 보호하는 용도가 추가되었다. 반면 한대에 이르러 장례의식에 옥이 사용되는 풍습이 기원 2세기쯤 소멸한다(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3:32).

한대 옥기는 대체로 연옥(軟玉)계 광물을 포함하는 유백색의 양지옥(羊脂玉)이 사용되었다. 특히 중국 옥기의 원료는 대부분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의 화전(和田)지방¹⁰⁾에서 출토되는 연옥을 이용하였으며 한대에 대량으로 수입하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¹¹⁾. 삼양동 출토 옥환 역시 연옥계에 해당하는데(국립제주박물관, 2001) 한대 화전지방의 원료를 사용

9) 옥벽은 한나라 무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문헌 사람의 가슴과 등, 관의 틈새에 놓아두는 장송 의례와 관련된 장신구이다(夏鼐, 1983:131).

10) 화전옥은 연옥(軟玉) 혹은 진옥(眞玉)이라고 하는데 화학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합수규산염광물이며 각섬석의 한 종류이다. 또한 화전옥은 백옥(白玉)·청옥(靑玉)·벽옥(碧玉)·흑옥(黑玉) 등의 색채를 띠는데 이 중에서 회고 온화한 것을 양지백옥(羊脂白玉)이라 하여 최고로 여긴다(穀會敏, 2008:19~20).

11) 최근 허북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 만성한묘(滿城漢墓)에서 출토된 옥기와 화전지방 출토 옥의 광물에 대한 과학적인(현미경·화학·X-방사선회절) 분석 결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夏鼐, 1983:126~127).

해서 제작된 후 낙랑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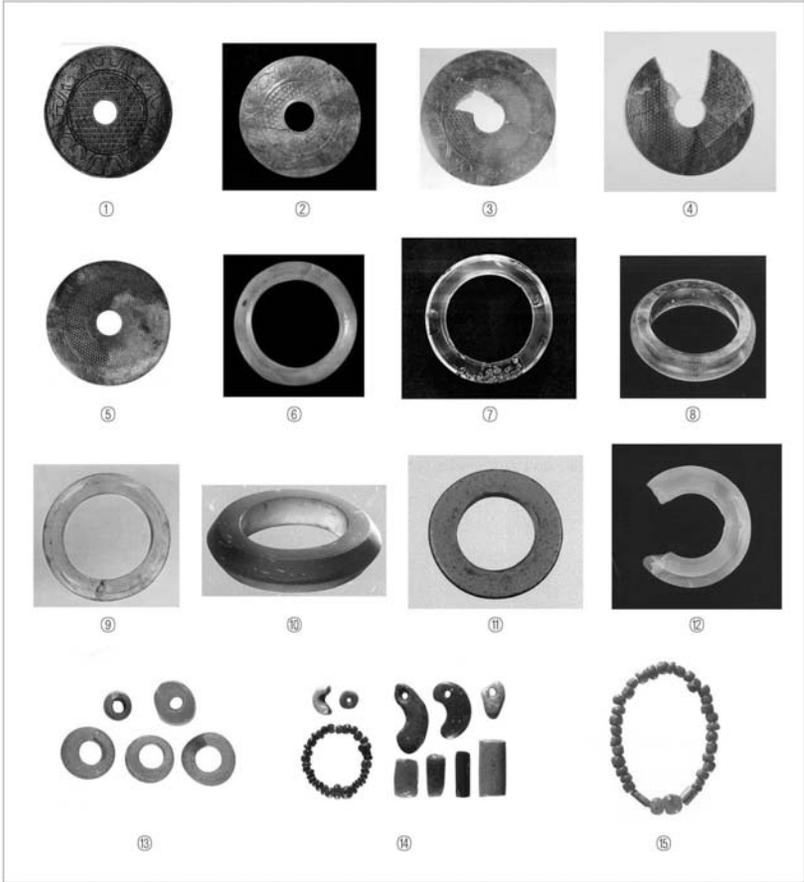
〈표 2〉 각 지역 출토 옥환

순번	출토지	유적명	단면 형태	색조	직경(cm)	조성 연대
1	한국	갈동 2호 토광묘	편육각형	청색조	4.2	기원전 2세기 후엽~1세기 말
2	북한	정오동 1호분	편육각형	황색조	8.7	기원 1세기 초
3	북한	전낙랑	편육각형	백색조	5.8	?
4	한국	삼양동 유적	편육각형	백색조	6.6	?
5	일본	大風呂南 1호분	장방형	청색조	9.7	기원 1~3세기

각 지역별 출토 옥환(玉環)의 형태를 살펴보면 정오동과 전낙랑, 그리고 삼양동 출토품이 단면 편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오후로미나미(大風呂南) 출토품 역시 단면 형태는 유사하나 평면이 수평적으로 처리되어 차이가 난다. 또한 옥환의 외곽 지름을 보면 오후로미나미 제품이 가장 넓고 갈동 출토품이 가장 좁게 확인된다. 색조는 정오동 출토품이 황색계열이고 삼양동과 전낙랑 제품은 투명한 백색에 가깝다. 반면 갈동과 오후로미나미 출토품은 청색조를 띠고 있어 대조적이다. 즉, 형태와 외곽 지름, 색조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전낙랑 제품과 삼양동 출토품이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삼양동 출토 옥환도 낙랑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유적별 조성 연대를 살펴보면 완주 갈동 출토품이 가장 앞서는 점(호남 문화재연구원, 2005)으로 미루어 옥환은 단면이 장방형에서 편육각형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도 옥환은 여러 군데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특히 교토 오후로미나미 1호분 출토품은 국왕의 장식용 팔찌로 추정하기도 한다(大阪



〈그림 7〉 각종 옥벽(①전국시대 ②낙랑 석암리 9호분 ③낙랑 정오동 1호분 ④흥노무덤 ⑤미야자키현 구시마오노야마-宮崎縣 伝串間王ノ山)과 옥환(⑥낙랑 정오동 1호분 ⑦전 낙랑 ⑧~⑨일본 출토 ⑩교토 오후로미나미 1호분 ⑪완주 갈동 2호분 ⑫삼양동 유적) 및 유리옥(⑬~⑭제주 출토 ⑮용담동 분묘)

府立弥生文化博物館, 2002). 하지만 출토 위치를 보면 흥부의 장식을 위한 패옥(佩玉)이거나 장옥(葬玉)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

서 당시 일본열도에서도 한대의 장례 풍습을 수용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小寺智津子, 2010:59).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쿠모 미나미코지오오보[三雲南小路王墓] 1호분의 경우에도 한국식 동검과 함께 중국 거울, 옥벽 등이 함께 꺼묻거리되고 있다(武末純一, 2009).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출토 옥환 역시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한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유적에서 옥벽이 출토된 예가 없다. 또한 옥환은 갈동에서만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삼양동은 집터에서 확인되어 차이가 난다.

한편 평양 낙랑구역 정오동 1호분과 석암리 9호분에서 옥벽이 각각 출토된 바 있는데 그중 2점의 가장자리에 반리운뇌문(蟠虺云雷紋; 구름과 번개 바탕에 용이 둘러져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이러한 형태와 문양이 새겨진 옥벽은 중국의 전국시대~한대에 걸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英豪, 2000:106~107).

정오동 1호분과 석암리 9호분은 무덤의 구조와 출토 유물의 조합상으로 볼 때 기원 1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148). 따라서 정오동 1호분과 삼양동 출토 옥환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정오동과 석암리 출토 옥벽 역시 한대까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양 유적에서 출토된 옥환은 기원 1세기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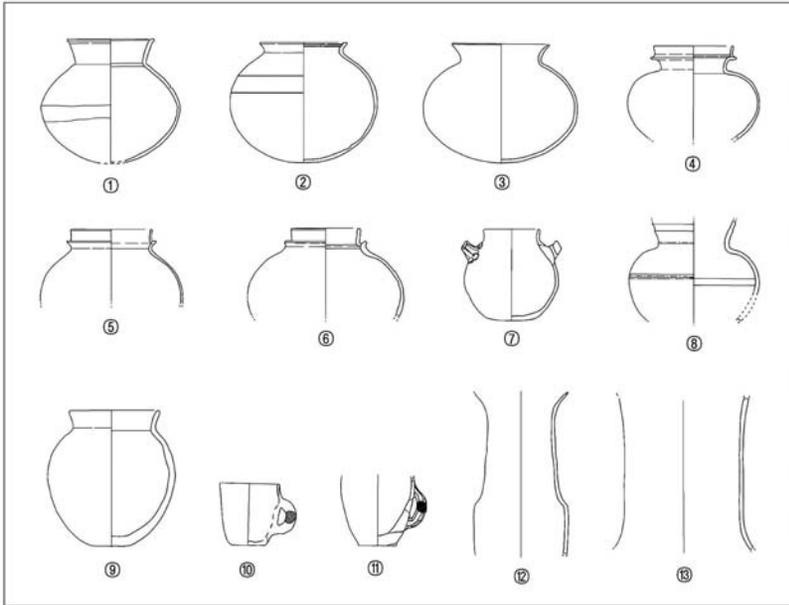
2) 유리옥(琉璃玉)

고대의 유리 장신구는 주로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대외교역을 통한 위신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유리는 기원전 2세기경 철기의 출현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주홍, 2007). 유리구슬 역시 낙랑군과 중국 남부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변·진한¹²⁾과 왜로 공급되었다(정인성, 2003:576~577).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유리구슬도 이러한 교역 루트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고온에서 용융된 유리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일본열도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小寺 智津子, 2010:56)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용담동 분묘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역시 성분 분석 결과 현대의 유리 성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이인숙, 1989:87~89).

한편 제주 용담동을 비롯한 경주 조양동, 창원 도계동, 부산 노포동, 경산 임당동과 일본 오후로미나미에서 출토된 고대 유리는 동일한 칼륨유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리 성분은 기원 전후~5세기대에 걸쳐 한반도 중남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이인숙, 1993:450).

최근 경주 덕천리 분묘군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목관묘 단계에는 포타쉬유리군이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목곽묘 단계는 알칼리혼합유리(65.5%)와 소다유리(31.0%)가 대부분이고 포타쉬유리는 점차 소멸하고 있다(김동윤 외,

12) 한반도 남부지역인 대구 팔달동과 창원 다호리, 포항 옥성리 출토 유리구슬은 남동위체의 성분 분석 결과 대체로 중국산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8〉 제주지역의 외래계 수입토기(①~⑧)와 현지 모방토기(⑨~⑬)

2011). 따라서 용담동 분묘의 유리구슬 역시 영남지방의 목곽묘 단계에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기류와 함께 동일 묘역에서 출토된 점을 감안한다면 알칼리혼합유리나 소다유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5. 외래토기(外來土器)

제주지역에서 낙랑이나 왜계토기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이후 삼한지역에서 유행하던 토기가 유입된 예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달리 패총 출토 점토띠토기는 광주 신창

동과 사천 늑도유적 등 남해안 일대의 삼한지역에서 확인되는 토기류와 동일하다. 또한 기원 3~5세기경에 해당하는 이중구연호와 양이부호, 개배, 장경호 등은 마한 혹은 변·진한 지역과의 교역 과정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김경주, 2009).

반면 제주산 바탕흙으로 제작된 토기가 경남 사천시 늑도 패총(이재현, 2008)과 전남 해남군 군곡리 패총(최성락, 1993), 전남 나주시 수문 패총(조현종, 2012)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즉, 이러한 토기는 제주에서 제작된 후 교역 과정에서 남해안 일대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탐라가 마한은 물론 변·진한과도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의 토기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제작한 예(고배형 토기, 컵형 토기, 원통형 토기, 목 짧은 항아리)가 화순리와 광지리, 종달리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삼한과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낙랑지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한식 토기와 이를 모방하여 제작된 토기가 여러 군데에서 출토되고 있다(정인성, 2003).

이처럼 탐라에서 제작된 토기가 삼한지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반대로 삼한지역 토기가 탐라에서 확인되는 점을 참고하면 당시 탐라와 삼한의 교역이 밀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색을 갖는 토기가 양쪽에서 서로 출토되는 것은 상인집단의 상호 방문교역에 의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낙랑과 왜의 토기는 아직까지 출토된 예가 없어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III. 대외교역의 양상과 수장층(首長層)의 출현

1. 대외교역의 양상

고고학에서 일컫는 대외교역¹³⁾이란 한 사회단위에서 다른 사회단위로 이동하는 교환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내교환은 특정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을 말한다(이희준 역, 2006:358~359). 또한 좁은 의미로는 물물교환을 뜻하지만 넓게는 상거래와 물물교환을 포함하는 무역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교역활동은 물자교류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의 성장을 비롯하여 문화변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이현혜, 1998:264).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탐라의 대외교역은 결국 제주 바깥에 존재했던 정치세력과의 상호교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외부 정치체와의 물자교류에 따른 교역의 양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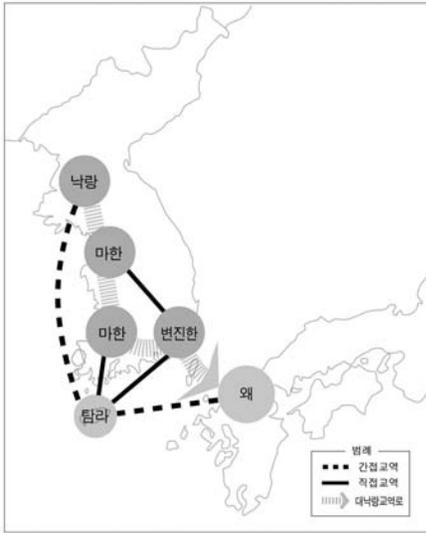
고대 문헌사료인 『사기(史記)』에는 한반도 남부지역 정치세력들이 선진문물을 향유하고 있던 한나라와의 통교를 원했으나 고조선이 가로막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삼한과 탐라의 정치세력이 한나라와의 직접적인 원거리 항해가 그만큼 수월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시 중원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육로 혹은 연안항로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교역은 특정한 교환형태로서 당사자가 동등하다고 인식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며 단위집단 내부의 거래를 대내교역, 단위집단을 넘어서는 거래를 대외교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창석, 2001).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한대 화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점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따라서 당시 탐라의 대외교역 루트는 한반도 서·남해안의 연안항로에 조성된 교역로를 따라 연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분포하는 중국 화폐의 유통권을 보면 중원 ↔ 낙랑 ↔ 마한 ↔ 변·진한 ↔ 탐라(일본열도)라는 대외교역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낙랑-삼한의 교역체계는 대낙랑교역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며 남해안 일대의 주요 거점 지역은 교역의 중개지로 부상한다(박선미, 2008:285).

제주에서 출토된 한식 유물을 살펴보면 대체로 낙랑군 설치 이후에 유입된 것들인데 변·진한 지역에 이러한 유물이 다량 유입되고 또한 현지에서 모방 제작한 유물이 급증하는 시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낙랑군과 삼한의 활발한 교역단계에 탐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선진 문물을 도입하게 된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와 철기류, 화폐, 옥기에 대한 검토 결과 기원전 1세기~기원 3세기에 걸쳐 한식 유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다. 즉, 한반도 서북부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다양한 교역 루트를 개설하고 한식 유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부구주와 영남지역 간 교섭이 개시된 이후 기원전 1세기쯤에는 늑도유적이 교역의 중심지로 등장한다(井上主稅, 2006). 동시기 늑도와 제주에서 동일한 형태의 토기와 중국화폐 등이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교역 루트에 탐라가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기원 3세기 말~4세기 초에는 중국 군현의 축출, 고구려의 남하, 신라의 성장 등으로 동



〈그림 9〉 고대 탐라의 대외교역 흐름도(추정)

아시아 교역체계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이현혜, 2001). 이로 인해 변·진한 지역이 낙랑에 집중된 교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역로를 개설하게 된다. 즉, 왜는 물론이고 탐라와도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원 3~4세기의 외도동 유적에서는 철기를 만드는 원재료 출토량이 급증하는데 변·진한과의 활발한 철 수입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 측 사료인 『삼국지(三國志)』의 기사를 참고하면 낙랑 혹은 대방군에서 왜에 이르는 해안 연안항로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루트는 기원전 1세기~기원 3세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즉, 기원전 1세기 이후 대마도와 김해를 연결하는 교역로는 진·변한의 철과 청동제 위신재를 입수하기 위해 새로 개척된 항로임을 알 수 있다(이재현, 2011:1364). 따라서 제주 지역도 이러한 교역로 개설 당시에 철기와 청동기를 매개로 한 교역 루트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중국 거울과 화폐가 출토되는 점이 바로 당시 교역로 개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낙랑과 왜로 연결되는 남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서남해안과 일본 큐슈지역의 직접적인 교역로상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세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탐라의 수장층이 낙랑 → 한반도 → 일본으로 연결되는 교역 루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랑과 삼한의 교역관계는 조공무역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현혜, 1998; 윤용구, 1999). 조공무역의 형태를 보면 무역사절단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사절단이 포함되는데(김병준, 2011:1404~1406) 하나의 교통로에 대부분 위치하며 주로 해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화폐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탐라 역시 이러한 조공사절단에 포함되어 교역 루트를 거쳐 낙랑과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무역이 병행되었다는 증거도 확인된다. 즉, 삼한지역의 일상적인 토기가 탐라에서 출토되는 것은 그곳에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역관계에 있는 지역의 토기가 수입되고 현지에서 모방토기가 제작된다는 것은 상인에 의한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인성, 2003:586~590).

낙랑군 설치 이후 변·진한 지역과 낙랑군의 조립식 한국식 동검이 서로 강한 유사성이 확인되며 삼한지역 출토 세모꼴의 청동화살촉 역시 낙랑에서 제작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인성, 2003). 따라서 산지향 출토 본뜬거울과 동검 부속구, 중국 화폐, 그리고 삼양동 출토 청동제 화살촉과 낙랑계 옥환 등을 참고할 때 당시 제주지역이 낙랑과도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탐라사회는 기원전 1세기 이후 낙랑 혹은 삼한지역과의 대외교역을 통해 한식 유물과 같은 선진문물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결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낙랑토기가 출토된 바 없지만 청동화살촉과 옥환이 확인되고 중국화폐가 해로를 따라 폭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낙랑과도 일정한 교역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제주지역에서 출토된 한식유물은 탐라의 상위계층이 동아시아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입한 대외교역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또한 낙랑과 마한 및 변·진한계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한반도 서북부~남해안으로 연결되는 연안항로를 통해 대외교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제경과 청동기, 철기 등은 변한지역과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천 늑도유적의 대외무역항을 이용한 교류가 활발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 수장층(首長層)의 출현

일반적으로 수장이란 각 사회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장의 무덤에는 청동기를 비롯한 각종 위세품을 꺼묻거리로 묻는다. 특히 철기가 출현하는 단계에는 군집묘가 조성되는데 철기와 유리구슬 등은 대외 교환망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상징성이 강하며 수장의 경제적 기반을 드러내는 유물임에는 틀림이 없다(이희준, 2011:63). 따라서 다량의 철기를 꺼묻거리한 용담동 분묘와 같이 개인의 위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기원전 1세기 이후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는 화폐와 더불어 한식 거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철기와 낙랑토기 등이 유통되기 시작한다. 특

히 한식 거울은 변·진한지역에 집중되고 이때부터 낙랑계 유물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낙랑문화의 확산 시기에 탐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낙랑과 삼한의 교역과정에 탐라의 수장층도 합류하여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조선이 멸망하고 낙랑군과 삼한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탐라의 상위계층 역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낙랑-삼한-왜로 연결되는 교역 루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한식 문물을 도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낙랑의 사회조직을 살펴보면 상위계층에서는 한식 요소가 강하게 확인되는데 반해 하위계층에서는 비한식적 요소가 뚜렷하다(高久健二, 1995). 이러한 예로 보건대 외부의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 최고 수장층은 다른 상위계층과의 직접적인 교섭¹⁴⁾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하위계층은 비공식적 교섭과 재분배를 통해 수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랑사회는 분묘의 겨문거리를 통해 그 계층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철제장검, 청동거울, 칠기 등이 묻힌 무덤을 상위계층의 묘제로 이해하고 있다(高久健二, 1995). 따라서 삼한지역은 물론이고 탐라에서도 이러한 무덤에 묻힌 자가 곧 최고 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의 상위계층은 다양한 위세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유통시키는 한편 대외교역의 최전선에서 선진문물을 독과점함으로써 탐라사회의 최고 수장층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14) 예를 들면 조공 혹은 사여(賜與)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제품은 대외적인 권위의 상징물이며 반면 한국제 청동무기는 대내적 권위의 상징물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청규, 1998:130).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동기는 대체로 수장층의 위세품으로서 대외 교역을 통해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또한 유리제품은 일본열도에서도 외부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유물을 꺼묻거리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피장자의 힘이 매우 우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小寺智津子, 2010:58~59). 반면 철은 수장권의 경제적 기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이희준, 2011) 특히 개인묘에 다량의 철 소재를 꺼묻거리하는 것은 그 지역 수장의 실질적인 권력기반이 되는 것이다. 즉,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김해 양동리 162호분에 다량의 판 모양 쇠도끼가 함께 묻힌 것은 그 지역에서 철 소재를 생산하고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자임을 과시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청규, 1998:133~134). 따라서 다량의 철기가 꺼묻거리된 용담동 분묘의 주인공은 이러한 철을 매개로 대외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탐라의 유력한 지배자임을 추정케 한다.

기원전 1세기 이후 제주지역에는 다양한 한식 유물이 수입되는데 동아시아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위계층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기원 3세기쯤에는 다량의 철제 무기류와 공구류를 포함한 중국제 유리구슬이 꺼묻거리된 용담동 분묘가 조성된다. 무덤의 구조와 꺼묻거리된 철제품을 통해 보면 당시 탐라사회의 최고 상위계층 분묘가 틀림없다. 따라서 기원 3세기쯤에는 적어도 탐라사회의 최고 수장층이 출현하였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탐라의 상위계층은 낙랑-삼한-왜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교

역로에서 적극적인 교역과정을 통해 수장층으로 성장하였으며 삼한의 정치세력과 대등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결연관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고고학적 위세품인 한식 유물을 도입하여 탐라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위계층임을 부각시키고 그 우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였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제주의 고대 정치세력인 탐라의 대외교역 활동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특히 기원전 1세기~기원 3세기까지 수입된 다양한 한식 유물을 중심으로 그 기원과 교역 양상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낙랑과 삼한을 통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까지 제주지역에서 낙랑토기와 같은 적극적인 교역의 대상물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모꼴의 청동화살촉과 옥환 등 낙랑계 유물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대외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탐라의 정치세력은 한-낙랑-삼한-왜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지역 내 수장층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한 최고 수장층의 무덤이 바로 용담동 분묘에 해당한다. 무덤에 끼묻거러진 다양한 철제무기와 공구류 및 중국계 유리구슬은 권력의 상징이며 상위 지배계층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대 탐라사회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낙랑군이 설치되면서 삼한과 더불어 다양한 대외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교역과정에서

위세품에 해당하는 한식 문물의 수입을 장악하고 분배함으로써 수장층으로 성장하였으며 결국 탐라의 상위계층으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다양한 한식 유물은 대체로 낙랑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삼한을 거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식 거울과 본뜬거울, 철제 무기류 등은 변·진한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한과 변·진한 지역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삼한지역과의 지속적인 대외교역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탐라사회의 수장층은 낙랑은 물론 삼한의 정치세력과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연관계는 상위계층이 동아시아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탐라사회가 이러한 대외교역에서 주변이 아닌 하나의 중심적인 교역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경주((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참고문헌〉

- 姜銀英(2001), 「漢鏡의 제작과 辰·弁韓 지역 유입 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姜仁求 譯(1993), 王仲殊 著, 『漢代 考古學 概說』, 學研文化社.
- 강창화(2009), 「고대 탐라의 형성과 전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 具門慶(2002), 「組立式 銅劍의 칼집에 대하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제주박물관,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 권오영(2009), 「고대 제주와 동아시아」,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 김경주(2009), 「고고학으로 본 고대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 김경주(2012),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 『人類學 考古學 論叢』,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 金京七(2009), 『湖南地方의 原三國時代 對外交流』, 학연문화사.
- 김길식(2006), 「진·변한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양상과 그 배경」, 『樂浪文化 研究』, 北方研究叢書 20輯, 東北亞歷史財團.
- 김동윤·김나영·이석범·김규호(2011), 「경주 덕천리 분묘군 원삼국시대 유리 구슬의 특성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第74號.
- 김동일(2013), 「비과형·세형동검의 검신과 검병 조립방식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第79號.
- 김무중(2013), 「中部地域 原三國時代 鐵器를 통해 본 樂浪」, 『韓國基督教博物館

誌』 제9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김병준(2011), 「敦煌 懸泉置漢簡에 보이는 漢代 변경무역-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 『한국 출토 외래유물-초기철기~삼국시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김일규(2009), 「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후기 취락」, 『加平 大成里遺蹟』, 京畿文化財研究院.

金鍾太(1977), 「樂浪時代의 泉幣銘文考」, 『全北史學』 1호.

金周弘(2007), 「古代 琉璃玉 製作技術 研究」,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昌錫(2001), 「三國 및 統一新羅의 商業과 流通」,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鉉珍(2006), 「영남지역 출토 한식경의 제작과 교역」,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2008), 「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古朝鮮 멸망이후 삼한지역 교역체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28, 한국고대학회.

박선미(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박순발(2001), 「馬韓 對外交渉의 變遷과 百濟의 登場」, 『百濟研究』 第33輯.

백제문화재연구원(2012), 『서산 예천동유적』.

申東昭(2007),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嶺南文化財研究院(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嶺南文化財研究院(2001), 『慶州 舍羅里遺蹟 II-木棺墓, 住居址』.

우재병(2011), 「무덤과 祭祀遺蹟을 통해 본 5~6세기 百濟와 倭」, 『韓國史學報』 제45호.

尹龍九(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漢代 樂浪郡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 『歷史學報』 第162輯.

- 이남규(2006), 「낙랑지역 한대 철제 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樂浪文化 研究』, 北方研究叢書 20輯, 東北亞歷史財團.
- 李南奭 · 李賢淑(2008), 『燕岐 龍湖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 李陽洙(2006), 「韓半島에서 漢鏡의 分配와 流通」, 『考古學誌』 第15輯.
- 李陽洙(2011), 「圓形으로 再加工된 漢鏡에 대하여-破鏡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57.
- 이영훈 · 이양수(2007), 「한반도 남부 출토 오수전에 대하여」, 『永川 龍田里遺蹟』, 國立慶州博物館.
- 李仁叔(1989), 「韓國 古代 유리의 분석적 研究(I)」, 『古文化』 34.
- 李仁叔(1993), 「동서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고대 유리」, 『한국학연구』 제5집.
- 李在賢(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 『韓國古代史論叢』 9.
- 이재현(2008),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 시스템」, 『大丘史學』 第91輯.
- 이재현(2011), 「진 · 변한출토 왜래유물의 성격-중국(낙랑) 및 倭를 중심으로」, 『한국 출토 외래유물 2-초기철기~삼국시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李清圭(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 21號.
- 이청규(1998), 「지배층 무덤의 변천에 대하여-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 『人類學研究』 8.
- 李清圭(2003),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접근-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한국고대사연구』 32.
- 이청규(2007), 「石劍, 銅劍, 그리고 鐵劍」, 『石心 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 考古學論叢』.
- 이청규(2008a), 「茶戶里遺蹟의 靑銅器와 辰弁韓」, 『茶戶里遺蹟 發掘成果와 課

- 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 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중앙박물관.
- 이청규(2008b), 「한일 靑銅器와 요시노가리 유적」,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ol. I, 주류성출판사.
- 李賢惠(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 이현혜(2001), 「加耶의 交易과 經濟-낙동강 하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李惠瓊(2011), 「中國 東北地方 靑銅器時代 銅鑊」,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준 역(2006), 콜린 렌푸류·폴반 저,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 李熙濬(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號.
- 井上主稅(2006), 「嶺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희(2011), 「嶺南地域 原三國後期 鐵劍·環頭刀의 地域別 展開過程」, 『嶺南考古學』 59號.
- 鄭仁盛(2003), 「弁韓·伽倻의 對外交涉-樂浪郡과의 교섭관계를 중심으로-」,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鄭仁盛(2011), 「낙랑토성의 청동축과 그 생산」, 『考古學論叢』,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考古學叢書 II.
- 鄭仁盛(2012), 「雲北洞遺蹟의 中國系 遺物」, 『인천 운북동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 제주고고학연구소(2013), 『제주 외도동유적 III』.
- 濟州大學校博物館(1997), 『濟州郭支貝塚』.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9), 『조선유적유물도감-고조선, 부여, 진국 편』, 외국문종합출판사인쇄공장.

趙鎭先(2005), 『細形銅劍文化的 研究』, 學研文化社.

조현중(2005), 「先史時代 濟州의 對外交流」, 『제주도의 고고학』, 제13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조현중(2012), 「영산강의 考古學」, 『榮山江의 傳·展·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자료.

清水康二(2010), 「거울의 階層性-日本列島 古墳時代 前期-」, 『청동거울과 고대 사회』, 복천박물관.

崔盛洛(1993), 『韓國 原三國文化的 研究』, 學研文化社.

崔鍾圭(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한강문화재연구원(2012), 『인천 운북동유적』.

韓修英(2004), 「靑銅鏃 小考」, 『研究論文集』, 湖南文化財研究院.

湖南文化財研究院(2005), 『完州 葛洞遺蹟』.

홍형우(2012), 「흑룡강·연해주 일대 초기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포럼 발표요지.

高久健二(1995), 『樂浪古墳文化 研究』, 學研文化社.

高倉洋彰(1989a),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研究論集』 14, 九州歴史資料館.

高倉洋彰(1989b), 「王莽錢の流入と流通」, 『研究論集』 14, 九州歴史資料館.

高倉洋彰(1994), 「後漢·原三國時代·彌生時代 後期の 銅鏡」, 『古代 東亞細亞의 再發見』, 亞細亞史學會 서울대회 발표문, 호암미술관.

穀會敏(2008), 「中國玉工藝傳統에 바탕한 디자인 提高方案에 관한 研究-岫岩玉

- 工藝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1993), 『弥生人の見た樂浪文化』.
- 大阪府立弥生博物館(2002), 『青いガラスの燦きー丹後王國が見えてきたー』, 平成14年 春季特別展.
- 武末純一(2008), 「茶戸里遺蹟과 日本」, 『茶戸里遺蹟 發掘成果와 課題』, 昌原 茶戸里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 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중앙박물관.
- 武末純一(2009), 「古代 韓半島와 九州」, 2009年 國立濟州博物館 國外學者 招請 講演 資料.
- 森岡秀人(2003), 「貨幣」,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III-交流と交易』, 同成社.
- 小寺 智津子(2010), 「弥生時代のガラス釧とその副葬」, 『東京大學校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第24号,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考古學研究室.
- 小田富士雄・武末純一(1991), 「日本から渡つた青銅器」, 『日韓交渉の考古學-弥生時代篇』, 六興出版.
- 李英豪(2000), 『鑑別古玉』, 辽宁畫報出版社.
- 鄭仁盛(2002), 「樂浪土城の青銅鏃」,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第17号,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考古學研究室.
- 夏 籟(1983), 「汉代的玉器-漢代玉器中传统的延续和变化」, 『考古學報』 第二期, 科學出版社.
- 會下和宏(2006), 「弥生時代の鐵劍・鐵刀について」, 『日本考古學』 第23号.

사진 출처

東京國立博物館(1978), 『東洋古代ガラス』特別展圖錄.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9), 『조선유적유물도감-고조선, 부여, 진국 편』, 외국문종합출판사인쇄공장.

朝日新聞社(1999), 『發掘された日本列島'99-新發見考古速報』.

李英豪(2000), 『鑑別古玉』, 辽宁畫報出版社.

국립제주박물관(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국립중앙박물관(2001), 『낙랑樂浪』.

湖南文化財研究院(2005), 『完州 葛洞遺蹟』.

국립제주박물관(2011), 『JEJU NATIONAL MUSEUM』.

국립중앙박물관(2011), 『몽골 로드릭나르스 흥노무덤(1)』.

한강문화재연구원(2012), 『인천 운북동유적』.